

## 제16대 대통령 취임 축하 외빈을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폰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

세르게이 미로노프 러시아 상원의장,

치엔치친 중국 부총리, 각국 정부 대표단, 그리고 귀빈 여러분,

저의 대통령 취임을 축하해 주기 위해 먼길을 마다 않고 우리나라를 찾아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범한 새 정부는 참여정부로 이름지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국정을 이끌어 간다는 뜻과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세계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발적인 모금과 자원봉사 물결은 한국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와 참여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되도록 경제 시스템을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치와 행정, 노사관계 등 사회 모든 분야에 대화와 타협, 원칙과 신뢰의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따뜻함이 감돌고 우리 국민 누구나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북한 핵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입니다. 그러나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돼서는 안 된다는 것도 국제사회의 분명한 목소리입니다. 저와 우리 국민도 같은 입장입니다.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미국·일본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러시아·EU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에는 여러 장애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족적 과업입니다. 서둘러서도 안 되지만 쉬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남북관계는 취임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화와 상호신뢰, 당사자 주도에 의한 국제협력을 통해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장차의 통일을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통 우방국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국민은 숭한 고난과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

임없는 외침 속에서도 민족사를 지키고 찬란한 문화를 가꾸어 왔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 세계 12위의 번영을 이룩해 냈습니다. 오랜 독재의 억압을 뚫고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 계신 외빈 여러분과 우방국의 도움이 참으로 컸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루어야 할 꿈이 많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여는 것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 꿈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평화와 행복, 번영에 이바지하는 꿈입니다.

우리의 우방국과 국제사회가 따뜻한 우정으로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각별히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축하에 감사드립니다. 그 우의를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